

Sports



몸부터 풀고...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경기를 앞둔 축구국가대표팀이 9일(한국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자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기운 게임으로 몸을 풀고 있다.

신소영 '세계 롤러' 시니어 첫 금

T300m 26초606…정홍래, 남자 EP10,000m 금메달

한국 블러의 기대주 신소영(대구시체육회)이 시니어 사상 처음으로 블러 T300m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소영은 8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아스콜리 피체노에서 열린 2012 세계 블러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시니어 T300m에서 26초606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이탈리아의 줄리아 본조로노(26초770)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 주니어 EP 10,000m에서는 유가람(경기동안고)이 9점으로 블룸비아의 파브리아나 아리아스(11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영, 76년만에 'US' 품을까

테니스 남자단식…앤디 머리 결승 선착



런던올림픽 테니스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앤디 머리(4위·영국)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총상금 2천552만 6천달러·약 288억원) 단식 결승에 올랐다.

머리는 9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뉴욕 플러싱메도의 빌리진 킹 국립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 토마시 베르디히(7위·체코)를 3-1(5-7 6-2 6-1 7-6(7))로 물리쳤다.

아직 메이저대회 우승 경력이 없는 머리는 노박ож코비치(2위·세르비아)와 다비드 페레르(4위·스페인)의 4강전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는다.

머리는 지금까지 메이저대회 결승에 네 차례 올랐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메이저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네 번 내리 패한

/연합뉴스

머리가 올해 US오픈에서 우승하면 1936년 같은 대회의 프레드 캐리 이후 76년 만에 메이저대회 남자단식을 제패하는 영국 선수가 된다.

/연합뉴스

남부대·광주체중 봉황기 사격 단체 우승

남부대와 광주체중이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남부대의 송수주, 주혁, 안태선, 최경철이 지난 6일 나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남대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763점을 합작하며 한국체대(1762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남부대는 김지수, 차윤철, 김종국이 출전한 속사권총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에서 금1, 은1, 동1의 성적을 냈다.

/김여울기자 woo@kwangju.co.kr

이동국-쌍용 출격 우즈벡 뛴다

(기성용-이청용)

내일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이근호 등 영건 대거 포진 '최강 조합'

역대 최강으로 불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융단폭격에 나선다.

최강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1일 오후 10시(한국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격돌한다.

한국은 최정에 요원이 집결한 만큼 방문 경기의 덫세를 누르고 한 수 아래의 우즈베키스탄에 낙승을 거둘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카타르와의 1차전(4-1), 레바논과의 2차전(3-0)에서 우승한 여세를 몰아 3연승을 달리겠다는 의지가 끼겁다.

한국은 런던올림픽이 끝나면서 그동안 소집하지 못한 23세 이하 '영건'들까지 거의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 감독이 구사하는 4-2-3-1 포메이션의 공격 선봉에는 국내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되는 이동국이 출격한다. 좌우 날개 공격수와 처진 스트라이커로는 김보경, 이청용, 이근호가 포진해 2선 공격진을 형성한다.

중원에서는 임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미드필더 기성용과 K리그가 자랑하는 중앙 미드필더 하대성이 공수의 연결고리가 된다.

왼쪽 풀백에는 윤석영 또는 박주호, 오른쪽 풀백에는 미드필더에서 수비수로 전향해 공격 성향이 뚜렷이는 고요한이 자리 잡았다.

포백(4-back) 수비리인을 지휘할 중앙 수비수로는 곽태휘와 이정수 등 최고의 베테랑이 포진할 예정이다. 골키퍼 장갑은 정성

룡이 끌 것으로 예상된다.

골잡이 박주영과 김신우, '독도 세리머니' 중앙 미드필더 박종우는 조코로 출격을 준비할 계획이다.

울림표에서 동매달 퍼거를 이룬 신예들과 '쌍용' 기성용, 이청용의 재결합은 특별히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미드필랄 카시모프 감독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은 이란, 레바논과의 1, 2차전, 쿠웨이트와의 평가전에서 날개 공격수와 풀백들을 이용한 활발한 측면 공격을 선보였다.

한국의 전력이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수비를 강화하고 나서 측면의 강점을 활용해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두 차례 최종예선 경기에서 1부 1차례 승점 경쟁에서 처진 상태라서 승리를 위해 초반부터 강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측면 요원들 외에도 최전방 공격수 알렉산더 간이리히, 치진 스트라이커 세르비르 제파로프, 플리야이메이키 티무르 카파제가 주요 경계대상이다. 세 선수는 지난 시즌 각각 K리그 수원, 서울, 인천에서 활약해 한국축구의 스타일을 잘 안다.

카타르, 레바논, 이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A조에 편성된 한국은 조 2위까지 누리는 본선 직행에 도전한다. 이번 경기가 끝나면 다음 달 14일 이란(원정), 내년 3월 26일 카타르(홈), 6월 4일 레바논(원정), 6월 11일 우즈베키스탄, 6월 18일 이란(이상 홈)과 차례로 맞붙는다.

한국은 2승(승점 6)으로 이란(1승1무·승점 4)을 제치고 조 1위를 달리고 있어 3연승을 거두면 남은 일정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연합뉴스

수익성 최상원룸 급매

- 2억8천만원 매매가 월500만원 수입!
- 신규 리모델링 월 177평 (상하방 별도, 공실 무)
- 지하 1층 지상 4층(453㎡)

T. 010-2659-9230

비아·씨알·캡슐

미제 정품!! 국내 최저가!!
30점 1층 · 일미늄포장 16점, 32점
010-3982-9266

한국명산 16회 원정대, 모집

▶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다섯번 산행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언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 최 | **MILLET M** | 주 관 | Mtour | 후 원 | **65** 광주일보사

9월 26일(수)

9월 25일(화) / 덕유산

9월 25일(화) / 덕유산